

# 취업후기

안녕하세요, 20학번 정수영입니다. 저는 23년도 하반기 삼성전자 신입사원 3급 공채에 합격했고, 직무는 삼성전자DS 반도체연구소 공정설계입니다.

아래는 제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내용 중 무엇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서 최소한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작성했습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설명]

메모리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삼성전자DS지만, 반도체연구소는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회사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연구소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연구하고 양산단계까지 이관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반연은 연구소다 보니 석, 박사와 함께 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학사입니다.) 동기들 대부분이 석사더라고요. 하지만 입사하고 나서 석사와 학사 하는 업무가 다르진 않았습니. 똑같은 신입사원으로 대우받고 일을 배웁니다. 연구소 가려면 석사는 해야 하지 않아?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는 학사도 충분히 취업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부서는 크게 **TD**(Technology Development) , **공정개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TD**팀은 Vth는 얼마로 해야 할지, gate oxide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할 지 등 반도체 제품의 규격을 결정하고, **공정개발**팀은 제품의 목표 스펙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요소기술을 정의합니다.

(사실 아직 부서 배치도 안 받은 상태라 지금은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어렵네요ㅜㅜ 취업준비 하실 때 회사 부서가 하는 일 많이 찾아보리라 생각되는데, 나중에 저에게 메일로 물어보시면 설명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스펙]

### 1. 학점 4.4 / 전공학점 4.47

학점은 (-)가 되지 않을 뿐이지 큰 (+)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학점만 보고 뽑는 회사는 없기 때문입니. 실제로 저도 서류탈락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학점이 좋다고 서류통과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점이 높다고 자만하지 말고 충실히 준비할 것, 학점이 낮다고 자신의 한계를 낮추지 말 것" 입니다.

## 2. 어학 OPIc IH

저는 스피킹 성적 3학년 2학기 겨울 방학 때 땀습니다. 이 시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 3. 대내외 활동

- 코멘토 직무부트캠프 교육 1개월 (공정설계 직무) - 4학년 여름방학
- 나노 소자, 공정 연구실 학부연구생 6개월 (김수현 교수님) - 3학년 여름방학~ 2학기
- 독서토론모임 2년 - 2~3학년
- 기숙사 자치회 동장 1년 - 2학년
- 반도체산업 실무이론 집중교육 30시간 - 1학년 겨울방학

언제 대외활동을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학교 어느 시기에 진행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저는 휴학 없이 방학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여러 대외활동 중 삼성 서류에 작성했던 것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학생활을 즐기고,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골라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들 다 하는 활동이라고 무작정 진행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준비할 때 '왜 그 활동을 했는가?', '그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 하는 공정실습도 안 하고, 컴활, 기사자격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끌리고,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6-sigma BB는 땀는데도 기재 안 했습니다. 필수적인 대외활동은 없습니다. 쫓대 있게 주체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ㅎㅎ

## 4. 수상경력

- 천마독서장학금 독서감상문대회 총장상 - 3학년 2학기
- 창의성, 리더십,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총장상 - 3학년 2학기
- 글로벌챌린지스토리 공모전 총장상 - 3학년 1학기

저는 '2학년때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고, 3학년때는 대회에 나가 상을 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은 것 말고도 다양한 교내, 교외 대회를 나갔었고 여러 번 입상실패도 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도전해 보세요, 특히 교내대회는 은근히 수상의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 [취업과정]

### 1. 서류

처음 서류를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혼자 쓰지 말고 피드백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취업처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드백 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소서 피드백을 받을 때 그냥 자소서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A 경험을 녹이고 싶은데 글이 잘 안 써집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B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데 C 경험을 써서 녹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고민되고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분들께 훨씬 자세한 피드백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드백 받는 사람도 좋은 답변을 얻고 시간을 아끼면서,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도 훨씬 편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중에야 깨달아서 활용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소서는 본인 이야기이므로, 글의 핵심 콘텐츠는 본인의 머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것만큼은 피드백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경험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글을 쓰면 됩니다. 글솜씨는 부족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으며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서류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ㅎㅎ )

### 2. GSAT

정말 삼성에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4학년 1학기에(상반기) 삼성 인턴에 지원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인턴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턴을 내고 gsat에서 떨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인적성이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입 지원했을 때 절대 GSAT에서만큼은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7월부터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바로 인적성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7, 8, 9, 10월달까지 20, 21, 22, 23년도 해커스 렛유인 에듀윌 위포트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시중의 문제집은 전부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수로는 15-18권 정도를 2-3회독 풀었고 모의고사로 치면 200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인적성 잘하는 사람은 몇 주 동안 1-2권 풀고도 합격한다던데, 억울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좀 독하게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니고 독학도 해보고 스테디도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다 해보고 추천드리는 것은 스테디+양치기 입니다. (조원들이 화합

이 잘되야 좋습니다. 나태한 분위기면 안됩니다.)

저 정도 양은 경쟁자들 대비해서도 문제집을 정말 많이 푸는 편인데, 혼자서는 절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원들과 문제 푸는 팁도 공유하고 매일 묵묵하게 출석하면 분명 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적성에 약하다면 저처럼 무식하게(?) 양치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면접

\*저는 삼성면접만 봐서 모든 것은 삼성 기준입니다.

\*삼성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서치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므로 안 적습니다.

저는 면접을 꽤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팁들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삼성면접은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다른 지원자대비 스펙이 많이 부족했는데,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면접관 분들께 좋은 인상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담 따먹기로 착한 애 전형에 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초반 1분 기세를 휘어잡자.** 기세를 휘어잡는다는 말은 면접관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궁금해야 질문도 잘 나오겠죠? 저는 초반 기세를 휘어 잡기위한 방법,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으로 인사를 크게 했습니다. '걸어 들어가서 면접관 분들께 미소 지으며 큰 목소리로 인사하기'가 생각보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큰 목소리로 또랑또랑 말하면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면접관 분들은 저에게 시선 집중이 확 되면서 그 뒤로도 좋은 면접 분위기를 만들어 갈 확률이 커집니다.

실제로도, 제가 직무면접에서 문제풀이를 틀리게 했음에도 면접 분위기만큼은 좋았는데 그게 첫인상과 초반 기세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엽게 틀린 수준이 아니고 대차게 틀려서 지금 되돌아보면 답변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커버가 될 만큼 면접초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둘째, 비언어적태도를 연습하자.** 제가 느끼기에 면접은 사람의 인상, 풍기는 분위기가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인상 안 좋으면 망한 거냐, 인상을 어떻게 바꾸냐? 하겠지만 면접 30분동안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 면요. 면접관 분들과 아이컨택은 필수입니다. 아이컨택으로 준비된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닌 대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관 분들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 자연스러운 표정 등을 좀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 보면서 딱히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두괄식으로 말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언어적태도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다른 지원자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감 빼면 시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지원자보다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이고 그게 다 티가 납니다. 반면 '나를 뽑지 않으면 너희들 손해야 난 ~~한 장점이 있는 걸?' 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런 것이고 그게 곧 설득력입니다. 경력도 아니고 신입이므로, 자신감이 곧 말의 근거가 됩니다. 똑 같은 말을 해도 자신감 있게 말하면 말의 설득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사실 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이 글도 자신감 있어보여서 괜히 설득되지 않나요? ㅎㅎ

자세한 면접내용은 말씀 못 드려서 아쉽지만... 특히 연구소였기에 학사출신인 저는 석사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배움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길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보여줬던 것이 저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넷째, 본인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하자.** 면접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면접관 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나?' 이 말에 잘 대답 못하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직무역량으로는 1. 높은 학점 2. 학부연구생 경험 3. 직무부트캠프 경험 / 인성역량은 1. 적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얻음 2. 글쓰기, 독서모임 등 인문학적 역량*

이런 식으로 손에 꼽을 수 있게 정리해두고, 면접에서 이것들 만큼은 후회없이 제대로 어필한다! 는 생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직무역량만 준비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인성면접에서 반드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직무 외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다섯째, 직무면접은 전공보다 더 심화로 공부해야 한다.** 특히 저와 같은 직무를 지원하신다면 더 많이, 깊게 공부해야 면접 때 문제 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전공에서 재료전자물성론 - 반도체재료 수업을 듣고 PN junction을 배우셨다면 그거보다 더 심화된 MOSCAP, MOSPET을 알아야 합니다. 전공을 안봐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더 심화된 것을 단시간 내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더 더 전공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다른 학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반도체 소자에 관한 심화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접준비와 동시에 공부하려면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

\*여기에는 제가 대학생할 하면서 느낀 바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 1. 전공 공부는 족보에 의존하지 말 것.

여러분들은 족보에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족보랑 똑같이 나와서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과제는 절대 족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조금 틀리거나 점수 낮다고 큰 차이 없습니다. 과제를 스스로 풀면서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족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제 어렵다고 족보 보지 말고 교수님께 여쭙보세요! (저도 족보 하나도 안 본건 아닙니다....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족보만 믿고 공부 안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비싼 학비 내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학비 뽕뽕는다라는 마인드로 교수님들께 많이 물어보고 지식을 쑥쑥 뽑아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학문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성적표만 바라보기 보다는 학문을 탐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재료공학 그럴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 2. 목표는 크게 세우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것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10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적어도 5,6 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1만점의 목표를 세우면 1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대여서 난 여기 까지야 or 학점이 나빠서 안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지워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대출신 학사가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어떻게 가? 적어도 석사는 해야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를 세울 때부터 무조건 노력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목표를 세우고, 이르기 위해 실천하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3. 영대소식 자주 보고, 취업처도 잘 활용할 것

영대에서 갓생을 살기위해 해야 하는 첫번째 노력은 영대소식을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대소식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먹기 바랍니다. 영대소식에 각종 대회, 해외봉사, 인턴, 현장실습, 대외활동 등등 뽑아 먹을 것들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처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대 취업처 굉장히 잘 되어있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처 인스타가 있는데 팔로우하시면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잘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 4. 다양한 경험으로 대학생활을 채울 것

혹시 과 사람들만 어울리거나, 동아리가 좋아서 동아리활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대학생활 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영대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 그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 학교 뿐만 아니라 대구권이나 전국단위로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 아니면 외국인 친구 사귀기 이런 것들 너무 좋지 않나요? 대학생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한 것들 중 추천 드리는 활동은 독서토론 모임입니다. 대학교 2학년때 직장인 어른분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했었는데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책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밀도 높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책벌레들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 [마무리 하며]

적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긴 글을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적은거 같아 부끄럽네요. 사실 저도 노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1 입니다. 가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취준 생활, 대학생활도 되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이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끝나서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알차고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시고 원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저에게 혹시 물어볼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kstlr5289@naver.com](mailto:rkstlr5289@naver.com)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믿어 주신 신소재공학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이 오리처럼 생각하세요~~